

서효인의 좌측담장



좋은 게 좋다는 아시안게임

우리나라에서야 야구가 최고의 인기 스포츠이겠지만, 세계적으로 야구를 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미국과 캐나다, 중남미와 카리브해의 몇몇 국가, 동아시아의 한국·일본·대만 정도가 전부일 것이다. 넓게 봐 주변 호주와 네덜란드 정도가 포함될 수 있을 거다. 거의 유일한 국가 대항전 야구 대회인 WBC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도, 모으고 모아 봐야 16개국에 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해 지금 6월 15일 개막하는 FIFA 월드컵은 어떠한가. 32개 참가국은 각 대륙에서 치열한 예선을 거쳐 당당히 러시아 땅을 밟는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국가가 FIFA 가맹국이다. 축구는 인종과 대륙을 막론하고 누구나 공 하나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그만큼 보편적이다. 야구는 경기장도, 도구도, 룰도 조금은 복잡하다. 축구와 야구는 그 즐거움의 깊이는 비슷하겠으나, 여러모로 대적점에 서 있는 스포츠라 할 수 있겠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야구를 하는 나라는 적고, 축구를 하는 나라는 많다. 이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종합 스포츠대회에서의 정식 종목 채택 여부를 가르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 그리하여 올림픽에서 야구는 한때 퇴출되었다가 도쿄 올림픽에 한해 임시로 정식 종목 지위를 회복하였다. 아시안게임에서는 퇴출

논란에도 불구하고 근근이 유지는 되고 있는바, 참가국은 8개에 불과하다. 여덟 참가국이 메달 색을 겨루는, 약간의 민망한 대회의 국가 대표 엔트리가 발표되었다. 아시안게임이든 올림픽이든 우승하면 좋고, 애국심에 의거한 응원을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에서의 야구가 이토록 관심을 받는 이유는 스포츠의 매력이나 국가주의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쉽사리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화두. 병역 혜택이 관심의 원인이다.

올림픽은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따야 병역을 합법적으로 짧게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스포츠 선수에게 엄청난 기회이자 혜택임은 분명하다. 여러 종목에 일괄적으로 이 조건은 적용되는데, 축구는 물론이고 수영, 육상, 배드민턴, 탁구, 레슬링, 근대3종...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야구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기 가장 용이하다. 참가하는 8개 나라 중에 프로 수준의 야구를 하는 나라는 3개국에 불과한데 대만에는 꽤 긴 시간 우리가 우위를 보여 왔고, 일본은 프로 선수가 아닌 사회인 선수가 출전한다. 2006년 도하와 같은 이변이 아니라면, 금메달을 딸 확률이 높은 것이다. 달리 말해, 병역 의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1998년 방콕에서, 2002년 부산에서, 2010년, 2014년... 메이저리거를 포함해 많은

야구 스타가 아시안게임을 통해 커리어를 더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올해 열릴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다. 국가 대표 선수들의 애국심을 의심할 필요는 없겠지만, 병역 혜택의 달콤함을 부인할 다른 알리바이도 딱히 없다. 그들을 탓할 이유도 없다. 나 또한 합법적인 방법이 있었다면 훈련소 가는 길을 피했을 것이다. KBO는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동안,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리그를 중단한다. 올스타 휴식기도 3일에 불과한 야구에서, 3주에 가까운 리그 휴식은 기형에 가깝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프로야구의 매력 중 하나는 매일매일 경기가 지속된다는 점이다. 오늘의 승부 뒤에는 내일의 선발 투수가 예고되고, 오늘 부진한 타자가 내일 컨디션 회복할 수도 있다. 주6일 게임을 위해 선발 투수는 다섯 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불펜 투수의 등판 일정은 세심하게 조율된다. 던지고 치고 달리는 것만이 야구가 아니다. 게임과 게임이 이어지고 그 이어짐을 통해 기록이 쌓이는 것. 야구팬이라면 모두가 아는 야구의 참맛일 것이다.

도대체 아시안게임이 뭐라고 리그를 중단하는가. 같은 기간 K리그는 정해진 일정을 모두 소화할 예정이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축구팀은 흠의 이점을 안고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이전 대

회에서는 오랜 기간 병역 혜택... 아니, 우승에 실패했다. 앞서 말했듯이 축구를 하는 나라는 아주 많고, 경쟁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적을 올리기 어려우니까. 리그를 중단하면서까지 아시안게임에 몸값 높은 선수들을 차출하는 이유일 것이다. 정예 멤버로 참가하면 금메달을 딸 확률이 높아진다. 젊은 유망주가 병역 혜택을 받아 리그를 이끌 스타가 될 수 있다. 그 선수는 물론 그가 속한 팀에게도 좋은 일이다. 정예 선수를 차출한 상태로 진행되는 리그는 형평성 논란에 시달릴 것이다. 기록 관리도 안 될 것이다. 결국 리그를 중단하는 것만이 능이와 매부 모두가 좋은 일인 것이다. 이른바, 좋은 게 좋은 것. 리그를 중단하는 이유가 좋은 게 좋은 것이기 때문이리라.

좋은 게 좋아서 어떤 선수는 끝까지 버티며 아시안게임 승선을 노린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 미필 선수를 탈락로 적절히 안배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금메달을 담보할 수 있는 베테랑을 선발한다. 그들이 국가를 대표할 때 야구는 선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누가 무엇이 어떻게 왜 좋은지, 곰곰이 생각할수록 미궁이지만, 아마도 그 대답에 애국심의 자리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시인)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社說

민주당 싸늘이 6·13 민심 ‘개혁·평화’ 백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였던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번 선거는 민선 7기를 책임질 지방자치 일꾼들을 선출하는 장이지 의의미가 컸다는 점에서 현 정부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개표 결과 14일 0시 현재 민주당은 전국 열일곱 곳의 광역 단체장 가운데 열네 곳에서, 자유한국당은 두 곳에서 당선인 확실시된다. 또 열두 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는 민주당이 열한 곳에서 앞서가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단 한 곳도 견지지 못할 처지다. 제1야당인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참패를 면치 못했다.

민주당은 특히 광역 단체장 선거에서 수도권 세 곳은 물론 충청권과 한국당의 텃밭이었던 PK(부산·울산·경남)까지 싸늘이한 데 이어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해 전국 정당 기반과 원내 제1당의 지위를 더욱 공고하

게 다졌다. 투표율도 60.2%로 지방선거로는 23년 만에 60%를 돌파해 민주당의 승리에 힘을 실어 주며 지방 권력의 재편을 이끌었다.

이 같은 선거 결과는 당초 예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이어 가면서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졌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불어 한반도 평화 바람도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들은 이렇다 할 이슈를 만들어 내지 못한 채 지리멸렬했으며 그들이 주장한 ‘정권 심판론’도 힘을 쓰지 못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일당 독점에 따른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자만하지 말고 민생 개혁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 야권과 보수 진영은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뼈를 깎는 자기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시·도지사 당선인 앞에 놓인 과제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무난히 당선됐다.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바다. 두 당선인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라는 점 외에도 정통 행정 관료 및 의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광주·전남 유권자들의 표심은 두 당선인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새로운 광주시장의 중임을 맡은 이 당선인과 전남호의 키를 처음 잡은 김 당선인은 이제 눈앞에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 나가야 한다. 핵심은 민생 경제일 것이다. 이 당선인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 일자리 경제 시장’을 표방했다. 김 당선인 역시 ‘새로운 천년, 전남 병영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공약했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은 민생을 살리는 새로운 민선 7기 시대를 열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수월 내 현대차와 완성차 공

장 설립 투자 협약을 앞두고 있다. 이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자 광주 경제 활성화 촉매제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만들기’를 제1공약으로 내세운 이 당선인은 이와 같은 민선 6기의 과제를 이어받아 구체적인 사업으로 완성시켜야 한다. 남북 화해 시대를 맞아 김 당선인의 ‘서남해안 경제협력 벨트’도 주목받고 있다. 전남의 강점인 농수축산업과 에너지·농생명 등 새로운 미래전략산업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공약들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두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초래된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측근들을 보은(報恩)이나 낙하산 인사로 앉히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의 바람대로 두 당선인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발휘해 공약(公約)을 하나둘 이뤄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중진의원 원장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인인 과거 60년대만 해도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생물학적 결함이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관련 연구가 많아지면서 점차 진료와 진단을 받는 환자도 많아지고 있다. 과거 다섯 가지 전 반적 발달 장애(자폐 장애, 아스퍼거 장애, 전반적 발달 장애, 렛트 증후군, 소아기 붕괴성 장애)를 현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통일하여 부르고 있다.

이 질환의 핵심은 사회적 의사 소통이나 상호 작용이 떨어지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흥미, 활동 패턴을 보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헤아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읽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 맺음이 잘 되지 않는다. 또한 융통성 없이 별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며 자기자극(自己

刺戟) 행동에 몰두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지시를 잘 따르지 않거나 무절제하게 보이고 이발 행동이나 산만한 행동을 보여 사람으로부터 더욱더 소외되고 멀어지게 된다.

감각적인 자극에 과하게 반응하거나 약하게 반응하여 주변에서 아무리 불려도 안 들리는 것처럼 행동하고 시계 초침 소리에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한다. 전정 자극을 좋아하는 경우라면 끊임없이 빙글빙글 돌거나 제자리 뛰기를 반복하기도 한다. 까치발로 자주 걷는 것도 이에 해당이 된다. 감정이나 정서적인 불안정이 있어 이유 없이 갑작스런 기분 변화가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갑자기 울거나 웃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 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가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 나타낸 결과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주변 가족들이 가지는 고통은 짐작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 처음 이 질환이 사람들에게 알려졌

을 때는 할 수 있는 치료가 정신 치료나 놀이 치료뿐이었다. 하지만 그 치료가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후 많은 연구와 치료법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아직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다.

다만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결함을 줄이고 의사 소통이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향상시켜 좀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넓혀가게 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적응해 나가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치료 목표가 된다. 최근에는 각 개인의 특성에 맞춰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 개입하는 개별화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초기에 응용 행동 분석(ABA)과 같은 교육적인 행동 치료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환경적인 변화나 약물 치료법으로 인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미래가 조금씩 밝아지고 있는 것이다.

기고



최류빈 시인·전남대 생물공학과 4년

문단의 경계와 지역 문학에 관한 소고

는 바람을 생각할 여유가 마땅히 없고 그 자체로 바람의 생(生)을 사는 듯하다. 시절은 어느 때나 힘들었지만 지금 젊음은 표류하고 있다. 와중, 어쩌면 문학의 소외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래서일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십대 문학 예술인을 알아보려고 검색을 해 보면 거의 전멸에 가깝다. 더불어 문학 권력이 중앙에 편중되어 있고 젊은 문학도와 예술인들은 다 멀리 가있는 현실도 여기에 한 몫을 한다. 이른바 ‘청년 예술인’이 ‘지역’에서 문장의 날개를 펼치기는 마냥 쉬운 일은 아닌 듯하다. 물론 내가 될 두리번거린 탓인지도,

문단에, 특히 지역에 새로운 문학의 활력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이 더 큰 가치를 표방해야 한다. 근래 수능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시를 쓴 원 저자마저 풀 수 없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물론 입시도 큰 가치를 갖지만, 교육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면모를 떠나 본질적 고민과 학문적 탐구를 기치로 내걸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이렇게 걸리진 창의적인 인재들이 그 어떠한 차별이나 편견 없이 실력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필두로 떠오르는 어두운 빛나는 예술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부정적 모습을 지우고 문화예술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젠 녹록치만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되, 지역의 특장(特長)을 믿고 젊은 문학도 저마다 지역 문단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 광주에도 ‘오월 시인’ 김준태 선생부터 ‘여수’의 서효인 시인 등 기성의 경륜과 충분한 인적 자원들이 있다. 예향의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앙 문단’이라는 말을 파헤칠 수 있을 만큼 실력 있는 신인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공이나 성별, 출신 파위의 외부적 실루엣만을 더는 따지지 않고, 진정 실력 있는 문학인들이 지역 문단의 심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믿고 따라왔던 상상의 경계 속에서 우리는 지역과 중앙, 등단

과 비등단 등을 구분해 왔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한 구별이 한국문학을 진일보 할 수 있는 기회에서 비켜 나가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우리는 낯게 성찰하고 기성 문단의 지혜를 배우되 젊은 열정과 의정까지 도출해 낸다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이른바 지역이 중앙이 되는 긍정적 도지에 도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연대할 때 더 거대해진다. 젊은 문학도들이 응송그리던 손잡고 일어나, 두 손 가득담이 찰 만큼 문학으로 왓 자지껄 했으면 좋겠다. 주변을 둘러보자 각급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문예창작과나 인프라는 신인 배출에 있어 굳건한 힘이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길을 이 미 거쳐 간 문학도들이 남긴 족적들은 나와 같은 신인들이 쫓아갈 빛이 되어주고 있다.

이제 빛으로 글을 쓰자! 여기 빛고을이 결코 예술을 하는 데에 있어 불리한 도시가 아니라고 힘 있게 생각해 본다. 내게 올 다한증이 기다려지는 여름 밤, 메아리가 들려온다.

無等鼓

흑백 영화 속 그녀는 아름답고 신비로웠다. 거기에 파란만장한 삶까지 더해지면 영화에서 쉽사리 눈을 뗄 수 없었다. 영화 ‘삼촌과 데릴라’ 등으로 1940년대 할리우드를 주름잡았던 그녀는 에니메이션 ‘백설공주’의 모델이었다. 여성 히어로 ‘갯 우먼’에 영감을 주기도 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불렸던 그녀의 이름은 헤디 라머(1913-2000)다.

현재 상영 중인 다큐 ‘밤엘’은 헤디 라머가 1990년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그녀의 삶과 궤적을 따라간다. 젊은 시절 속아서 짝은 영

발명가 여배우

리가 활용하는 와이파이어 블루투스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다. 그녀 사후 독일은 헤디 라머 생일을 ‘발명가의 날’로 선포했고, 구글은 2015년 ‘헤디 라머가 없었으면 구글도 없었다’(NO HEDY LAMAR, NO GOOGLE!)라는 기념 영상을 발표, 역사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과학자 헤디 라머’를 기렸다.

헤디 말고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던 과학자는 또 있으니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이다. 그녀는 사실 뛰어난 통계학자였다. 통계학을 활용해 보건의료의 기초를 세운 선구자로, 영국 왕립통계학회 ‘엑스터시’로 예로티시즈배우라는 꼬리표가 달리고, 여섯 번의 결혼과 이혼 등 화제의 중심에 섰던 그녀는 훗날 ‘사람들은 나의 이름다움만을 탐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미모만을 소비했지만 그녀에게는 감춰진 또 다른 삶이 있다. 다섯 살 때 뮤지박스를 해체·조립했을 정도로 그녀는 ‘발명이 취미’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업자였던 첫 남편에게서 ‘원거리 조종 어뢰’에 관한 계획들을 들은 그녀는 얼마 후 ‘주파수 도약’으로 알려진 아이디어를 고안한다. 현재 우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 | | |
|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 경 영 지 역 국 220-0515 (FAX 222-8005) |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
| 편 집 부 220-0649 | 문 화 부 220-0661 | 기 획 관 리 국 227-9600 |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
| 정 치 부 220-0632 | 문 화 미 디 어 부 220-0664 | 체 육 부 220-0697 | 디 자 인 실 220-0536 |
| 사 회 부 220-0642 | 체 육 부 220-0697 | 사 진 부 220-0693 |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
| 사 회 2 부 220-0652 | 사 진 부 220-0693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